

찾잔·다관 깨졌다고 버리세요?



깨진 다구 고쳐쓰는 요령

‘아차!’ 하는 사이에 깨져버리는 다구. 평소 아껴 사용하던 다구가 깨졌을 때의 안타까움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 처음 차를 배울 때 사용했거나 몇 년에 걸쳐 사용해 온 때와 애정이 듬뿍 묻어 있는 등 특별한 사연이 담긴 다구라면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깨진 다구를 수리해서 사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감상용 도자기와 달리 직접 차를 우려 마시는 다구는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수리가 까다롭다. 때문에 그동안 많은 차인들은 깨진 다구를 일본의 다구 전문점에 맡겨 수리를 해오고 있는 형편이다. 만만치 않은 수리비와 긴 수리 기간을 감수하고서라도 다구를 수리

하고자 하는 것은 다구가 단순한 ‘차 우러는 기구’를 넘어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수양하는 도반(道伴)이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인사동 즈미화랑 내에 문을 연 김경환다도구수리연구소(02-738-6569)는 그래서 더욱 반갑다. 다구 수리 장인으로부터 수리법을 배운 김소장은 “주위 분들의 다구를 한 두 개씩 수리해드리다 입소문이 나 이렇게 다도구 수리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게 됐다”고 말한다.

김경환 소장(43·즈미화랑 대표)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다구들 중 대부분은 자사호

울 수 있다. 일반적인 도자기 수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호마이카 수리법은 육안으로 수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하지만, 비용이 비쌀 뿐 아니라 전문 수리점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그나마 다구 수리법으로 적합한 것은 옷을 이용해 성형 또는 접착을 하고 금칠을 하는 법이라고 김 소장은 말한다.

그렇다면 김 소장이 개발한 수리법은 무엇일까?

먼저 화학 세제 대신 소금에서 추출한 천

비싼 수리비 감수 일본 다구점에 맡겨온 실정
최근 ‘김경환 다도구 수리연구소’ 문 열어 관심
재질 가볍고 얇은 자사호·다관 깨지기 쉬워
옷 이용한 성형 접착 금칠 일반적, 조각 챙겨야

와 다관, 재질이 가볍고 얇아 깨지기 쉬운 자사호는 뚜껑과 손잡이, 출수구 부분이 주로 깨지고 다관은 입술 부분이 깨지는 경우가 흔하다. 김 소장이 흔쾌히 수리에 응하는 것도 이렇게 생활 속에서 쓰이는 다구들이다. 수리비용은 3만~10만원 정도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다구 수리법을 살펴보면 석고수리와 돌가루 수리, 호마이카 수리, 옷 수리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조금씩의 단점이 있어 자주 쓰이는 다구를 수리하기에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김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석고나 돌가루를 이용해 수리할 경우 뜨거운 물을 자주 부으면 접착력이 떨어지고 접착제가 녹아 나

연물질로 다구의 때를 제거한다. 다음은 깨지거나 떨어져 나간 부분, 또는 갈라진 틈 등에 기밀의 태토와 비슷한 물질을 반죽해 메운다. 태토가 굳어지면 겉모양을 다듬고 그 위에 유약과 금분(金粉)을 섞어 붓으로 발라준다. 유약이 마르면 재질에 따라 180~450℃의 가마에서 구워낸다.

만약 자사호의 손잡이나 꼭지 부분이 떨어졌을 때는 강력 접착제로 붙이거나 공방 등에서 금을 이용해 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적인 수리를 원한다면 접착제로 붙이지 말고 깨진 조각을 다 챙겨 두었다 수리를 맡겨야 한다.

글=여수령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행다로 피워낸 茶心

이경순의 ‘선영화(禪影花)’展

범어사 성보박물관, 3월 11일까지



말차를 격불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선의 그림자를 꽃피운(禪影花)’ 사진전이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3월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사진전은 그동안 불교적 소재로 꾸준한 작품 활동을 펼쳐 온 이경순 영광도서갤러리 관장의 아홉 번째 사진전이다.

행다(行茶)의 과정 속에 드러난 선의 그림

자를 포착해 놓고 있는 이번 작품들은 다인의 마음까지 엿볼 수 있는 행다의 이면을 담고 있어 더 눈길을 끈다.

“성정이 가라앉은 격조 높은 물/녹색 가루 위로 사정없이 쏟아 내린다/섞이지 않은

뒤섞임/다선은 말차의 속내를 읽고/들의 심장 박동수로 화합을 이루어/스구치는 거품을 이끌어낸다.”

“행다선(行茶禪)”을 주제로 한 이 글은 사진전 열두에 두고 쓴 것은 아홉이지만 말차를 휘젓고 있는 손의 움직임과 손을 무릎에 얹은 채 다스듯하게 마주 앉은 자세를 포착해 놓은 사진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경순 관장은 “누구나 쉽게 표현할 수 없는 선의 세계를 감히 담아내고 싶었다”며 “나의 존재를 확인해가는 또 다른 여정인 행다 과정을 담아놓은 사진 앞에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의 존재를 되묻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51)508-6139

천미희 기자

▷ 이런 곳 잘 깨져요



다원이나 찾잔은 입술이 닿는 부분이, 자사호는 뚜껑 손잡이와 출수구가 깨지기 쉽다.

▷ 수리는 이렇게



다구의 깨진 부분을 깨끗이 다듬은 후 기름과 비슷한 태토로 성형한 후 유약과 금분을 섞어 발라 가마에서 구워낸다.

쌍유화 교수의 보이차 이야기



6. 보이차 속 골동보이차

만주족이 지배했던 청나라가 1911년에 망하자, 쑨원(孫文)을 중심으로 새로이 구성된 한족의 나라 중화민국이 탄생하게 된다. 이후 40년간 중국은 일본과의 전쟁, 내전으로 인해 극심한 피폐에 시달린다. 20세기에 접어들어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변방에서 생산된 보이차가 중앙에 공급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되었고, 결국 보이차는 중앙지배계층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지는 운명을 맞게 된다. 이것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가 ‘보이차’란 이름조차 모르고 지내야 했던 역사적 배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운남 현지의 보이차 생산은 위축되지 않았다. 비록 중앙에서의 시장은 잃었으

이처럼 저장 가능케 하는 직접적 동기가 되었고, 생차와 묵은 차 등 두 가지 형태로 상품화하게 된다.

보이차는 묵을수록 생기는 독특한 맛이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차상점들은 순환판매(循環販賣) 방식을 택하여 매년 새로 만든 보이차는 창고에 저장해두고 묵은 보이차를 연도에 따라 값을 매겨 거래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

당시 보이차를 취급하는 상점의 집합지는 이무(易武였다. 이무는 소위 찾잔이 좋다는 6대차산(六大茶山)에 있었고, 이 6대차산을 가리켜 통상 ‘이무차구(易武茶區)’라고도 부른다. 대표적인 차 상점인 복원장(福元昌), 동경호(同慶號), 경창호(敬昌號), 동창호(同昌號), 송방호(宋勝號) 등이 모두 이곳에 가게를 열어

오랜 전쟁으로 중앙보다 서역시장 활기

묵힐수록 맛 독특, 저장 연도따라 값 달라

나 광활한 티베트, 위구르, 몽골 등 서역(西域)의 소수민족들이 주 소비층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광대한 서역시장의 수요는 보이차의 생명력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었고, 보이차를 취급하는 상점 또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상인들은 보이차를 두 가지 품질로 나누어 만드는데, 서역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하등급 찾잔으로 만든 긴차(緊茶) 혹은 병차(餅茶)였으며 수유차(蘇油茶)의 원료로 쓰였다. 고급 찾잔으로 잘 만들어진 산차(散茶)와 원차(團茶)는 주로 해외 시장으로 나갔다.

당시 운남성 보이차의 찾잔은 오늘날과는 달리 모두 아생종이었다. 당시의 보이차는 찾잔을 튀어 숨을 죽여 비린 후 햇볕으로 말린 방법 즉 전통가공법으로 만들었다. 또한 아생 찾잔은 일반 찾잔과는 달리 카테킨의 함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미노산, 당류 등의 성분이 상대적으로 높기에 카테킨의 떫은맛을 상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달리 보이차를 생차(生茶)로도 마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때의 원료가 아생 찾잔이었기 때문이다.

보이차의 생명력은 생차뿐만 아니라 묵힘으로써도 나타난다는데 그 매력이다. 이러한 장점은 보

부를 쌓았다. 그러나 이곳에서 발생한 돌림병(瘧疾)은 보이차의 상업근간을 송두리째로 바꿔놓았다. 이무에서 발생한 돌림병의 파장은 운송수단인 마방(馬幫)까지 미치게 했는데, 각지의 마방들이 전염병이 두려워 이무 출진을 거부하는 사태는 이무 차산업에 전멸을 끼쳤다. 이에 과거에 이무 빈민하게 원래했던 마방들의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보이차 상점들도 잇달아 휴업하게 된다.

공산중국의 개인 상점마저 허용하지 않는 정책 아래 이무의 보이차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해 그 화려했던 영화(榮華)를 접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신물이라 여긴 옛 보이차는 문화대혁명 때 모두 불태워졌고, 그나마 지구상에 남아 있는 것은 모두 50여 년 전 다마고도(茶馬古道)를 통해 동남아를 거쳐 홍콩 상인들 손에 있는 것이 고작이었다.

희소가치가 있거나 유사 깊은 기물(器物) 또는 서화(書畫) 등의 미술품을 가리켜 골동품이라고 한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골동품이라 불리는 ‘골동보이차(骨董普洱茶)’. 한 편 먹을 때마다 가치가 배로 뛰어들어 호가(呼價)는 있어도 거래가 없는 골동 중의 골동으로 보이차 마니아로부터 추앙받고 있다.

■ 한서대학교

보이차 전문점

진년보이·진년오롱·철관음·오물차
 대홍포·화차·인삼오롱·40여가지의 차

瑞榮普洱

■ 조제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밀납양초 (Bee's Candle)

2006년 신제품

삼보귀의 하얗고 저희 삼한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 전문 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개발중 이번엔 밀납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래 있는 양초외 행사용, 기도용 주문제작 판매)

양초가 연소되면서 나는 향만이 천연 향입니다. 국내외에서는 밀납양초 약삭향양초 등이 있습니다.

천연약삭향 양초의 특징

- ① 일반양초보다 연소시간이 40%이상 길어진다.
- ② 실내에 배어있는 약취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 ③ 천연약삭향이 양초가 연소되면서 은은히 실내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머리를 맑게하여 진취적 사고를 솟아나게 합니다.

천연약삭향 양초 (발명특허 122357호)
 국내 산천에 자생하는 약속에서 추출한 향이 첨가된 발명품

- 약삭향양초 1호(돈티대) 5.6cm × 27cm 연소시간 약 100시간
- 약삭향양초 2호(밀대) 4.6cm × 25cm 연소시간 약 40시간
- 약삭향양초 3호(돈티대) 3.4cm × 22.5cm 연소시간 약 2시간
- 금강경 7개 세트 59cm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밀납초의 특징

- ① 그윽음이 없습니다. ② 연소 시간이 일반양초보다 2배이상 길어집니다.
- ③ 연소되면서 발광량이 은은히 실내를 가득채워 실내공기를 정화 시킵니다.
- ④ 지금까지 양초에서 발생하는 내음새, 그윽음을 한꺼번에 해결하였습니다.
- ⑤ 도종발집에서 추출한 밀납이니 순수한 우리것입니다.
- ⑥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생각하시어 양초도 선별하여 사용하시고 기도하실때는 반드시 밀납양초를 이용합시다.

- 1호 59cm × 18cm 연소시간 약 72시간 이상
- 2호 59cm × 13cm 연소시간 약 50시간 이상
- 3호 47cm × 14cm 연소시간 약 30시간 이상
- 4호 47cm × 9.5cm 연소시간 약 24시간 이상
- 밀납초 받침대 1호~4호까지 사용, pc연초 7시간 이상, 선물용 세트(1~4호 밀납초 받침대)

* 박스로 주소 보내주시면 견본이나 샘플컷 보내드리겠습니다

天一氣功

천일기공 소백산 수련원에는 전국에서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스님들이 안심하고 오셔도 됩니다. 14년간 수 많은 스님들이 건강을 되찾고 기차유법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재복 회장이 오대산에서 만 3년간 매일 100리(40km)씩 걸으면서 얻은 행선법의 의미와 진공 호흡법의 깊은 세계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性命雙修 -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 것이 도와 건강에 이르는길입니다.
- 色心不二 -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가 아닌데 마음만 닦으면 몸은 언제 닦으시렵니까?
- 골격이 틀어지고 숨줄이 막혀 있어서 앉아 있을수록 몸이 뒤틀리고 다리가 저려서 좌선을 할 수가 없는데 여쭙 도를 닦는다 하십니까?
- “너 숨줄줄 아느냐?” 세상에는 숨 줄줄도 모르는 구도자들이 숨을 만들어 쉬면서 큰 병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수행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 숨을 고르는 것과 만들어 쉬는 것이 하늘과 땅 만민의 차이인데 그 원리를 아는 분이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1단계수련 : 3박 4일 코 - 스
 <매일 1회 실시-선착순 20명 마감>
천일기공책(이재복 지음) 300면 값 10,000원

- 음기(사기)제거법의 원리도 모르는 스님들이 내가 병드는 줄도 모르고 구병시식이나 천도재를 많이 지낸 후 병의에 시달리거나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고 손발이 싸늘하게 되면서 병마에 시달리는 스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니다 안타깝습니니다.
- 여기 음체(냉한몸)를 양체로 바꾸고 氣場을 높이는 고급수련 법이 있습니다. 단시일에 氣場이 높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스님을 몸에서 엄청난 음기(사기)가 쏟아져 나오면 구역질이 날 정도로 약취가 진동을 하고 찬바람이 소용돌이 치면서 빠져 나오면 그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병의 원인을 알게 됩니다.

수련을 마친 스님들께서 평생에 소중한 인연 맺은 좋은 기회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천일기공소백산수련원에 오시면 수련에 대해 총 정리가 됩니다.

천일의학기공연구회 소백산수련원
 ■ 회원가입신청 : 054)637-9810(수련원) / 02)3436-3206 ~ 7(서울본회)
 수련원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구구초등학교지리) *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